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2.8.26.(금) 10:30, 이효정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추석을 맞아 8월 29일 월요일부터 9월 3일 토요일까지 6일간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남북 주민이 함께하는 제2회 남북통합문화콘텐츠 확산주간을 개최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행사로서, 남북 한마음 버스킹공연, 북한 명절음식과 VR 체험, 한반도 사계절 샌드아트 체험 등 남북 주민이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통일부 주요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 탈북민 북한인권단체장들을 면담하면서 북한 인권 및 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오늘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하니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오늘 비공개 면담하시는 것, 혹시 몇 시부터 하시는 것이고 사후에 자료나 간단한 내용을 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련 일정과 면담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협의 후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북한이 어제 악성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4명의 유열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뒤에 오늘 이들이 돌림감기, 독감 환자로 밝혀졌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통일부는 이 발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북한의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어제 양강도에서 의심자 4명이 발생했다, 라고 보도한 바 있고, 오늘 보도를 통해서 4명 모두 돌림감기로 밝혀졌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북한의 발표 여부와는... 다만, 저희가 보기에 북한에 여전히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역규정 준수를 강조하고 있고, 방역 위기의식을 지속적으로 주입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북한도 하위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북한 내에서 코로나의 재유행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